

아이돌의 세계관 서사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 TXT의 〈꿈의 장〉 시리즈를 중심으로

이유나* · 류은영**

1. 들어가며
2. TXT 음악의 세계관, 〈꿈의 장〉의 기호학적 논리
 - 2-1. 〈꿈의 장〉 세계관의 기호학적 논리
 - 2-2. TXT 음악과 〈꿈의 장〉
 - 2-3. 〈꿈의 장〉 1. 〈별의 낮잠〉: 자아정체성을 찾아
 - 2-4. 〈꿈의 장〉 2. 〈매직 아일랜드〉: 꿈과 현실
 - 2-5. 〈꿈의 장〉 3. 〈이터널리〉: 미래를 향해
3.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K-POP 아이돌의 세계관 콘텐츠/서사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이다. EXO(2012)와 BTS(2013)의 글로벌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관 콘텐츠/서사’는 이후 데뷔하는 국내 여러 아이돌 그룹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룹 고유의 세계관 혹은 서사가 이제 각 그룹의 자기 브랜딩 및 포지셔닝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된 현 케이팝 문화의 장에서, TXT는 2019년 데뷔 이후 2024년 현재까지 판타지 성장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그룹 고유의 독자적 세계관 콘텐츠를 팬덤 및 대중과 공유하면서 확장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벤트성에 그치거나 내부 사정으로 유아무야 종결되는

* 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문화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부 초빙교수

여타 그룹과 달리 TXT는 세계관 콘텐츠를 시리즈로 선보이며 국내외 케이팝 소비자들에게 그룹의 존재와 이미지를 서사적으로 각인시켰다. 이에 우리는 TXT 세계관의 시작을 알리는 〈꿈의 장〉 세계관 앨범 시리즈 영상 세 편 〈별의 낮잠〉, 〈매직 아일랜드〉, 〈이터널리〉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방법론을 통해 TXT 세계관의 서사적 구조와 내재하는 주제의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TXT의 세계관 서사는 일차적인 음악적 소통을 넘어 ‘청소년의 성장-자아 정체성의 탐색-초월적 구원’이라는 일련의 주제의식을 통해 동시대 팬덤의 깊은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 내며 그룹의 음악적 비전을 밝히는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별의 낮잠〉의 ‘자아정체성의 성찰’로부터 〈매직 아일랜드〉의 ‘일탈과 자유의 추구’ 그리고 〈이터널리〉의 ‘구원과 초월’에 이르는 유기적인 영상 서사 시리즈는 TXT의 음악이 지향하는 ‘꿈, 희망, 서로 연대하여 성장하는 그룹/세계’라는 메시지를 재현한다.

따라서 우리는 TXT의 세계관 서사의 구조와 주제의식을 성찰하고, 나아가 결론 한편으로 그룹의 서사적 비전이 팬덤과 대중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관계, 요컨대 케이팝 아이돌 세계관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까지 잠정적으로 개진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아이돌, 세계관, 서사 담화 분석, 기호학, K-콘텐츠)

1. 들어가며

“아파트, 아파트 ...” 복잡하지도 심오하지도 않은, 세상 누구나 한두 번만 들어도 이해하고 따라 하기 쉬운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한 가사의 케이팝 한 곡이 그야말로 며칠 사이에 세상을 돌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인간 보편의 휴머니즘이라면, 형식과 내용이 단순하고 나이브하여도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보편적인 가치 그 하나만으로도 케이팝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케이팝은 철학의 오랜 난제인 자아와 타자, 주관과 객관, 개인과 사회 등의 이분법적 사유 혹은 정서를 하나로 수렴하는, 세계 간 문화장벽을 초월하는 윤리적, 미학적 미덕을 지니고 있다. 대중미학의 본질은 사실 무엇보다 이런 단순한 보편성에서 비롯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는 곧 케이팝의 세계관을 이루는 논리가 때로 지극히 단순하다 하여도 대중문화의 시대에 케이팝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유의미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제 케이팝의 한 장르, 아니면 한 포맷이라 할 수 있는, (음악 앨범에 맞춰 함께 공개되는) '세계관 영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연구를 하고자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의 케이팝 아이돌 그룹은 기본적인 음악 앨범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나 퍼포먼스 비디오, 유튜브 자체 제작 예능콘텐츠, SNS 숏미디어, 웹소설, 웹툰 등 다양한 플랫폼의 파생 콘텐츠들을 통해 그들 고유의 음악 세계와 이미지를 창출하고 팬과 소통하며 서사를 확장한다. 그중 최근 메이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새로이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는 '세계관' 앨범 영상 콘텐츠는 음악의 지향성과 테마, 이미지 등을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서사(narrative)'의 형태로 재현한다. 이는 음악 자체는 물론 철학과 감성까지 팬덤과 공유하고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며, 그만큼 학제적 연구 가치가 있는 케이팝의 한 현상이 되었다. 이에 우리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 그중에서도 세계관을 가장 주목할 만한 시리즈로 선보이고 있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 이하 'TXT')' 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관 서사의 담화 논리에 관해 기호학적 관점에서 접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케이팝 산업계에서 아이돌의 음악이 지향하는 철학 혹은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세계관'을 구축하는 일은 이제 하나의 필수적인 관행처럼 자리를 잡았다. 일례로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스토리콘텐츠기획' 직군¹⁾을 적극 채용하여 차세대 소속 아이돌 그룹 TXT의 세계관을 영상 미디어뿐만 아니라 <별을 쫓는 소년들>이라는 제하의 70화 분량 웹툰과 82화 분량 웹소설로 확장한 바 있다. 이는 곧 팬들이 음악과 함께 다양한 원소스멀티유즈 콘텐츠를 향유하며 더욱 능동적으로 그룹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재해석하여 확장할 수 있는 인터랙션의 장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팬들은 아이돌의 노래와 춤 등 퍼포먼스에 내재한 기호들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의미 체계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영상 이미지, 웹툰 및 웹소설 댓글, SNS 텍스트 등을 매개로 다른 팬과 공유하며 변형하여 새로운 텍스트로 구성한다.²⁾ 팬들은 스스로 TXT의 세계관을 수용적으로 해석하고 공감하며, 이 과정에서 세계관은 단지 공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수용자가 함께 상호 창조하고 확장해 가는 참여형 서사, 곧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제 세계관 콘텐츠는 수많은 그룹 사이에서 자기 그룹만의 고유한 브랜딩과 포지셔닝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서 케이팝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매체를 넘나들며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고 있는 TXT의 세계관 콘텐츠는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앨범별 단절적 서사로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과 대비적으로, TXT는 데뷔 이

1) 직무 내용을 살펴보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비롯하여, 웹툰이나 웹소설, 소설, 드라마 등 다양한 글로벌 미디어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IP 기반의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

2) 나재은, 『사회자본과 청소년 팬덤문화』, 지식의날개, 2021, 37쪽.

후 현재까지 일관된 세계관 서사를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K-세계관 콘텐츠에 관한 연구, 특히 그 내재적인 서사 담화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출시를 거듭하며 완성도가 높아진 TXT의 세계관에 관한 서사적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아이돌 세계관 서사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이나 홍보 전략 등 산업적 관점에서 소비자인 대중의 인기를 견인할 수 있는 기획이나 마케팅 전략에 관한 분석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³⁾ 박소영은 보이 그룹 ‘뉴이스트’의 노래 〈여왕의 기사〉를 모티프로 하는 순정 서사를 대상으로 그 세계관의 전개 형식과 내용을 고찰하였다. 해당 연구는 음악 앨범과 더불어 공개되는 세계관 콘텐츠는 대중이 그룹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 유효한 매개로서 아이돌이 ‘현실-직업-세계관(픽션)’을 잇는 트리플 캐릭터로 존재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다.⁴⁾ 주연경과 조혜정은 방탄소년단의 세계관 콘텐츠가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론에 따른 필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아이돌의 세계관 서사는 하나의 콘텐츠를 통하기보다 다매체를 가로지르며 퍼즐 조각처럼 제공된다고 설명하였다.⁵⁾ 최윤영과 고정민은 세계관 콘텐츠를 독자적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로 보고 ‘엑소’와 ‘방탄소년단’, ‘워너원’의 세계관 서사/스토리텔링을 유형화하려고

3) KCI에서 “아이돌 스토리텔링”을 검색하면 논문이 총 35편에 이르나, “아이돌 세계관”을 검색하면 총 21편에 그친다. 검색일: 2024.11.14.

4) 박소영, 「아이돌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전략: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3권 1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43-62쪽.

5) 주연경·조혜정, 「방탄소년단 세계관 콘텐츠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생성요건 연구」, 『인문사회 21』 제12권 4호, 인문사회 21, 2021, 1161-1176쪽.

시도하였다.⁶⁾ 이하나와 김민정은 아이돌 세계관의 활용 사례 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세계관의 복잡성은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세계관이 아이돌 그룹의 브랜딩과 팬덤 확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⁷⁾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세계관 콘텐츠의 대중적, 상업적 효용성이나 기획, 마케팅 등 실제적 차원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며, 아카데믹한 성격을 띤 경우라 하더라도 서사의 유형 분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차적 연구에서 나아가 세계관 서사를 음악의 철학적 지향성을 함축하는 내재적 담화로 상정하고, 서사 담화에 관한 구조분석론인 기호학을 통해 TXT의 세계관 서사에 내재하는 구조적 논리와 심층의 주제의식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TXT의 세 음악 앨범 〈꿈의 장: Star〉(2019.03), 〈꿈의 장: Magic〉(2019.10), 〈꿈의 장: Eternity〉(2020.05)의 발매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개된 〈꿈의 장〉 세계관 영상 시리즈 〈별의 낮잠(Nap of Star)〉, 〈매직 아일랜드(Magic Island)〉, 〈이터널리(Eternally)〉 3편을 대상으로 한다. TXT의 〈꿈의 장〉 세계관 영상 시리즈의 각 앨범은 음악 앨범의 타이틀곡이 아닌 수록곡들 중의 하나를 테마곡으로 하여 제작된 영상 서사라고 할 수 있다. TXT는 세계관 콘텐츠를 일회적인 이벤트성 기획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음악 앨범 출시에 맞춰 계속 시리즈 형식으로 공개하며, 각각의 시리즈는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의 챕터로 이해할 수 있

6) 최윤영·고정민, 「K-POP 아이돌 그룹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확장 사례 연구: 리부트와 오마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1권 4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723-733쪽.

7) 이하나·김민정,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관 활용 사례 현황 분석 연구 -K-POP 아이돌그룹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30권 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4, 357-366쪽.

다. TXT의 세계관 서사는 계속 현재진행형이며, 주된 내용은 다섯 소년이 하나가 되어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신체적 변이, 세계의 멸망과 구원, 악마화 등의 단계적 챕터를 거치며 다섯이 하나가 될 때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는 과정, 다시 말해 개인에서 그룹으로 나아가는 성장 서사와 그 메시지, 요컨대 TXT의 세계관을 영상 서사를 통해 가시적으로 펼쳐 보여준다.

이론은 텍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흔히 소용된 이론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텍스트에는 참신한 관점이고 논리일 수 있다. 기호학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 혹은 장르의 서사 담화 분석론으로서 이미 널리 활용되어 온 연구방법론이지만, 케이팝 장르에서는 그 사례가 극히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음악은 멜로디와 가사의 혼합 예술, 곧 서사 예술이라 할 수 있으며, 기호학은 이러한 서사 담화의 보편 구조와 심층 의미를 분석하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론의 하나이다.

아이돌 그룹의 세계관 콘텐츠는 인물·사건·배경을 근간으로 하는 서사 내용을 시청각적 형식, 즉 영상(뮤직비디오)이나 이미지(퀵샷 포토), 가사 등의 형식을 통해 전달한다. 팬들은 음악 앨범과는 색다른 흥미로운 세계관 콘텐츠에 숨은 이미지 기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영상을 시청하고, 분석하고, 관련 문학예술 작품들을 찾아보기도 하는 등 문화 산업의 가치 및 수익 향상과 연결되는 행위를 수행한다.⁸⁾ 실제로 아이돌 음악의 세계관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렇게 시청각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소통이 주를 이루는 현대 미디어 문화에서 어느 아티스트의 마니아가 되는 소위 ‘입덕’ 행위는 주로 사진·무대·뮤직비디오 등 시

8) 김진곤, 「BTS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의 시각 이미지에 대한 의미 분석」,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제23권 73호,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22, 109쪽.

청각적 경험을 통해 발생한다⁹⁾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케이팝 아이돌의 시청각적 세계관 콘텐츠를 기호학적으로 접근 고찰하는 연구는 인문학적 차원에서도 유의미하고 시의적절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존 피스크(John Fiske)는 기호학의 가치는 하나의 '텍스트(text)'를 사회 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의미의 구조, 즉 사회적 '담화(discourse)' 혹은 '서사'로 바라보며, 그러한 서사를 사회의 보편 구조와 직결되는 문화적 차원에서 탐구한다는 데 있다¹⁰⁾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TXT가 지향하는, 하나의 사회적 서사 담화로서의 세계관을 <꿈의 장> 시리즈를 중심으로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그 서사적 논리와 함께 TXT 음악의 함축적 메시지, 심층의 주제의식을 이해해 보기로 한다.

2. TXT 음악의 세계관, <꿈의 장>의 기호학적 논리

2-1. <꿈의 장> 세계관의 기호학적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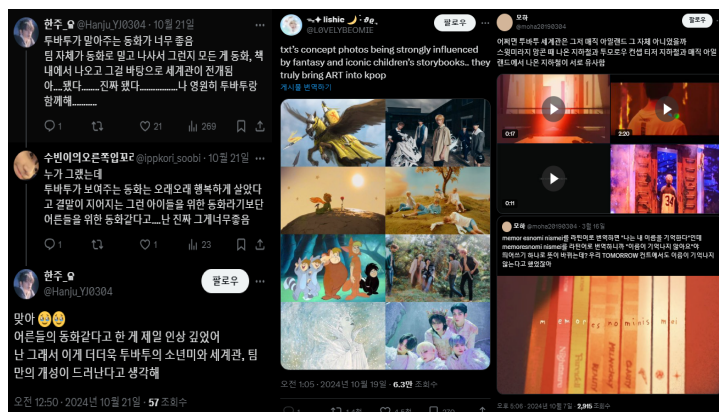
대중의 반응에 따라 흥행 여부가 갈리는 케이팝 산업에서 타 아티스트와 차별화된 세계관 서사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이 활용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서사를 활용한 마케팅의 목적은 상품, 즉 아이돌을 향유하는 소비자들을 서사의 세계에 진입하게 하는, 준비된 이야기에 끌려 들어 가도록 설득하는 것이다.¹¹⁾ 여러 앨범에 걸쳐 구성되는 세계관은 단서를

9) 안희제, 『망설이는 사랑: 케이팝 아이돌 논란과 매혹의 공론장』, 오월의봄, 2023, 253쪽.

10) 존 피스크, 『대중과 대중문화』, 박만준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43쪽.

11) 크리스티앙 살몽,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 정신을 포맷하는 장치』, 류은영 역,

제공하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뇌리에 깊게 남으면서, 팬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¹²⁾ 팬들은 세계관에 숨겨진 단서와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더욱 아이돌과 그 세계관에 몰입하게 되고(그림 1), 이 과정에서 팬덤은 더욱 결속력 있게 단단해진다. 또한 다음 앨범이나 콘텐츠에서 세계관 서사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는 꾸준한 콘텐츠 소비로 이어진다.



〈그림 1〉 SNS 상에서 국내·외 팬들이 세계관에 대해 나누는 의견

아이돌 산업에서 세계관 콘텐츠의 시초는 2012년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엑소(EXO)의 멤버 12명이 각기 다른 초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나무를 구원하는 내용의 서사 앨범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이 청년들의 성장 현실을 모티프로 한 세계관 시리즈 앨범을 발매하며 전 세계적 인기를 얻었다. 두 그룹 모두 글로벌한 성공을

현실문화, 2010, 59쪽.

12) 이지향, 『세계관 만드는 법』, 유유, 2023, 33쪽.

거두었는데, 특히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특색 있는 동시에 대중과 깊은 공감대 형성을 가능케 한 서사의 뛰어난 감성적 세계관의 힘이 그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¹³⁾ 그 이후로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은 저마다 제3의 시공간 배경 혹은 공감 가는 현실 속 상황을 모티프로 하는 특색 있는 감성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관을 적극 구축한 그룹으로는 엔시티(NCT), 에스파(aespa), TXT, 엔하이픈(ENHYPEN) 등 4세대 아이돌 그룹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현실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공간을 배경으로 꿈, 멀티버스, 마법, 뱀파이어 등을 소재로 한 영상이나 웹툰, 웹소설의 형태로 팬들과 세계관을 공유한다. 아이돌은 세계를 구하는 영웅도 되었다가, 러브라인에서 혼돈을 겪는 비운의 주인공도 되었다가, 고된 삶을 헤쳐 나가는 인생의 동반자도 되는 등 다양한 세계관을 구축하며 서사의 주인공으로서 거듭나는 매체적 경험을 반복하는 동시에 실제 아티스트로서 현실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인격 주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음악의 영상 서사인 세계관은 음반과 일체로서 현실과 연동되며 시각적, 청각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따라서 케이팝의 세계관은 음반 주제와 관련하여 팬과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서사와 연속성 있는 배경 스토리”¹⁵⁾가 된다. 이는 곧 우리가 TXT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그 세계관인 〈꿈의 장〉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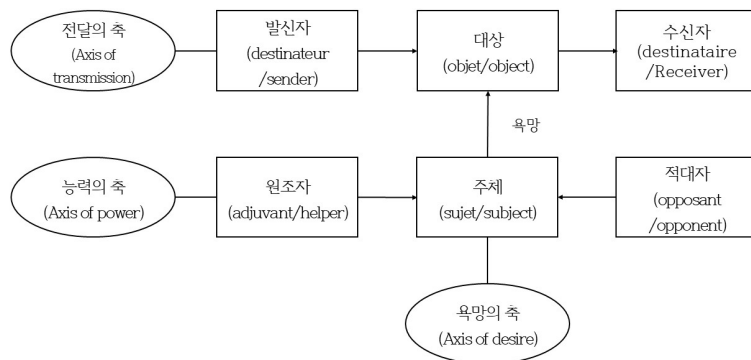
13) 정지은, 「케이팝(K-POP)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19권 3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9, 63-72쪽; 윤여광,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3권 3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9, 13-25쪽.

14) 김명진, 「디지털시대 서사와 매체의 융합: 세계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4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98쪽.

15) 이동은, 『스토리 유니버스』,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63쪽.

하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캐릭터 분석을 위한 모델로 잘 알려진 ‘행위자 모델 (Modèle actantiel/Actantial model)’과 내재적 의미구조 분석을 위해 널리 응용되는 ‘진리의 기호사각형 모델(Carré sémiotique/Semiotic square)’을 통해 서사의 구조와 그 세계관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그레마스는 캐릭터의 행위를 여섯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이항 대립하는 세 쌍으로 이루어진 행위자 모델¹⁶⁾로 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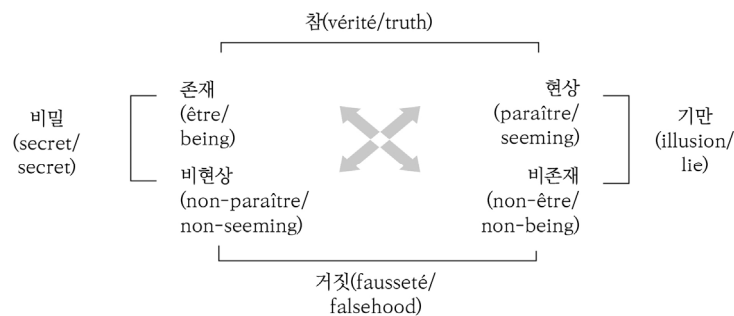
〈그림 2〉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은 ‘전달’과 ‘욕망’, ‘능력’이라는 역학 관계 속에 이항 대립하는 /주체-(욕망의) 대상/과 /(대상의) 발신자-수신자/ 그리고 /(주체의) 원조자-적대자/의 세 쌍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모델이다. 위 〈그림 2〉 도식과 같이, 주체는 발신자가 ‘전달’하는 대상을 성취하고자 ‘욕망’하며, 이 과정에서 ‘능력’ 관계에 있는 원조자와 적대자가 개입하고, 대상

17) Algirdas Julien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recherche de méthode*, Paris:Larousse, 1966, p.180. (‘축’에 관한 부연은 필자)

을 성취하면 결과적으로 영광을 얻는 수신자가 생기게 된다.¹⁷⁾ 특히 이 모델에서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은 서사가 지향하는 주제의식을 함축하는바, 서사의 캐릭터 구조뿐만 아니라 주제를 가시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유효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나아가 그레마스는 아래 <그림 3>으로 보는 '진리의 기호사각형 모델'¹⁹⁾을 정립하여 표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서사의 내재적 의미구조 혹은 심층적 주제/세계관을 밝힐 수 있는 논리적 근간을 제공하였다.



<그림 3> 그레마스의 '진리의 기호사각형 모델'

기호사각형은 “하나의 의미 실질 혹은 의미 범주가 분절된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²⁰⁾ 하는 모델로서, 문화콘텐츠가 창출하는 의미작용의 행

17) 위의 책, pp.172-191.

18) 류은영, 「신데렐라 서사의 현대적 패러다임: 동화 『신데렐라』와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42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13, 271쪽.

19) Algirdas Julien Greimas & Joseph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Tome 2*, Paris:Hachette, 1986, p.34, pp.34-39; Algirdas Julien Greimas & François Rastier, “The interaction of semiotic constraints”, *Yale French Studies* n° 41,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86-105.

20)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340쪽.

로²¹⁾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효한 모델이다. 기호사각형은 캐릭터(존재=주어=인물)와 플롯(현상=동사=사건)의 서사 관계를 함의하는, 즉 캐릭터 차원의 '존재'와 (모순항인) '비존재', 그리고 플롯 차원의 '현상'과 (모순항인) '비현상'의 네 요소 간 상호 모순의 역학으로 발현하는 참·거짓·비밀·기만의 진리구조를 통해 서사의 내재적 의미구조, 심층적인 주제, 곧 서사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²²⁾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 및 진리의 기호사각형 모델은 서사의 구조와 의미 분석에 유용한 방법론으로서, 실제 다양한 분야 혹은 장르의 여러 연구로 계속 응용 확장되고 있다. 그레마스의 기호학 모델은 기존의 문학 장르뿐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서사 텍스트의 주제 및 구조를 규명하는 데 유효한 탈장르적 분석론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호학 모델을 활용하여 서사 텍스트의 인물과 그들이 처한 상황의 의미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사를 통해 구현되는 세계관의 바탕을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케이팝 음악이 지향하는 세계관의 서사 구조와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유효한 논리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과 '진리의 기호사각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 대중음악 장르의 분석, 특히 케이팝 아이돌 세계관에 대한 심층 연구는 그간의 정성적인 분석이나 일부 그룹에 한정되었던 연구들을 인문학적으로 보다 심화하고 확장하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21)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4, 139쪽.

22) 류은영, 앞의 글, 271쪽.

2-2. TXT 음악과 〈꿈의 장〉

최근 일본 및 미주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남성 아이돌 그룹 TXT는 이미 성장 서사로 큰 성공을 거둔 방탄소년단과 같은 소속사로, 2019년 3월에 데뷔했다. 데뷔 전부터 공식 뮤직비디오 외에도 약 1분 30초 길이의 멤버별 소개 영상, 그룹 소개 영상, 뮤직비디오 티저, 앨범 프리뷰 영상, 앨범 비하인드 스토리 등 다양한 영상 미디어를 순차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신규 유입되는 팬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단계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략을 통해 TXT는 데뷔 전부터 그룹의 세계관과 멤버들의 매력을 미리 소개하면서, 잠재적 팬들에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갔다. 또한 이미 성공한 방탄소년단의 성장 서사의 양식을 자연스럽게 계승하여 팬들이 TXT의 곁에서 멤버들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연준, 수빈, 범규, 태현, 휴닝카이 다섯 멤버로 구성된 남성 아이돌 그룹 TXT의 그룹명에는 “Tomorrow By Together”, 곧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 함께 내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외적으로는 밝고 건강한 청춘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이 그룹의 세계관은 ‘TU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유니버스)’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음악뿐만 아니라 연계된 다양한 부가 영상들, 웹소설, 웹툰 콘텐츠로 연결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TXT는 그들의 세계관을, 흔히 이야기하는 성장 서사에 판타지 요소를 더하여 더욱 다층적인 서사로, 시리즈 형식을 통해 연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내부 사정 등으로 도중에 제공을 중단하거나, 단편 앨범 형태로 일회성 공개에 그치는 경우와 사뭇 다른 행보다. TXT 세계관 콘텐츠의 지속성은 2019년 발매된 데뷔 앨범 〈꿈의 장: Star〉에서

2024년 11월 발매된 <별의 장: Sanctuary>에 이르는 로고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그림 4).



<그림 4> (좌) 2019년도 데뷔 앨범 및 영상 속 별, (우) 2024년 11월 앨범 및 영상 속 별

데뷔 초기 직각에 무광 색의 단조로운 형상이었던 별은 5년 후 입체적인 유광 색의 다채로운 형상으로 구현된다. 로고의 시각적 변화는 TXT의 서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 확장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팬들은 이러한 ‘가시적인’ 로고의 변화를 통해 앨범 서사의 유기적 확장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TXT 세계관이 추상적인 단순한 나열을 넘어 연속성과 서사적 깊이를 점진적으로 더하고 구체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팬과의 정서적 연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처럼 TXT 세계관 콘텐츠는 팬덤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TXT의 세계관을 먼저 노래 가사를 통해 이해해 보면 기본적으로 ‘너와 나’, ‘세계의 끝’, ‘꿈’의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

세상은 대체 왜 이래 나한테 / 하루아침에 별이 달린 내 상태 / 빛이 있을
까 악마한테도 / 그때 눈앞에서 펼쳐진 네 날개 / 말해줘 너의 반쪽을 완성
하는 건 나잖아

<어느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CROWN)> (2019.03) 中

그럴 땐 눈물이 날 땐 내 손을 꼭 잡아 도망갈까 / 숨겨진 9와 4분의 3엔
함께여야 갈 수 있어 / 비비디 바비디 열차가 출발하네 / 비비디 바비디 우
리의 매직 아일랜드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Run Away)〉 (2019.10) 中

꿈속에서 사라진 something something / 남겨진 섬 잊혀진 그 멜로
디 / 무너진 모래성 who's a liar / 세계의 끝에서 춤추는 fire / 안 들리니
널 찾는 내 목소리 / 또 홀로 남겨지는 나, 구해줘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Can't You See Me?)〉 (2020.05) 中

눈을 떠보니 그 밤 불꽃비가 내리던 날 악몽을 부르는 춤 / 끝나지 않는
리듬 비명을 삼킨 이 어둠 / 커지는 너와 내 틈 눈앞에 펼쳐진 이 낙서 / 다
시 꿈속을 헤쳐 추억의 미로 속 잠긴 내 마음 구해줘 날 / 영원의 꿈 제일 깊
은 곳 잠든 푸른색 비밀로

〈Eternally〉 (2020.05) 中

나를 태우는 그 불꽃 비 속에 / 영겁같이 긴 여행 속에 / 너와 나는 슬픔
은 my clarity / 너의 눈물 곁으로 / Oh 추락해 오는 순간에도 너 all I
need / 무너진 폐허 틈의 너와 나의 place of promise / 안식의 대지 영
원의 회귀 / 날 기다려 줬던 너

〈Deja Vu〉 (2024.04) 中

저 달을 넘어 더 멀리 꿈을 건너 sanctuary / 찬란한 저 약속의 우주로
/ 나를 살게 했듯이 너를 웃게 할 테니 / Promise that I'll always be
anywhere you are

〈Over The Moon〉 (2024.11) 中

노래 가사에서 보는 TXT의 세계관은 우선 판타지 배경에 남들과 다른
'나'와 '너'라는 인물이 함께 시련을 겪으며 멸망한 세계를 구원하려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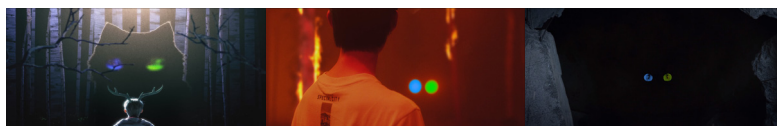
으로 구성된 서사 담화로 이해된다. 이 서사는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다시 합쳐진 지구의 변화로 인간이 마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TU의 〈별을 쫓는 소년들〉 웹툰 및 웹소설의 배경과도 맥을 같이 한다. 웹툰과 웹소설 속의 멤버들은 마법의 사용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마법을 쓰지 못하는 비운의 아이들로 등장해, 마법의 각성을 통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고, 마지막에는 팬들 앞 '꿈의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

원소스멀티유즈 콘텐츠 간 유기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TXT의 세계관은 사실 한 사람에 의해 구상되는 것이 아니다. 케이팝은 일반적으로 수명의 작사가가 쓴 가사를 종합하여 한 곡의 가사가 완성되고, 한 줄의 가사만 포함되어도 작사가로 곡 정보에 등재된다. 뮤직비디오나 세계관 영상의 디렉터 혹은 프로듀서 역시 거의 매번 다른 인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는 세계관이 전반적인 틀 안에서는 유기적 맥락을 보이지만, 작사가나 디렉터 혹은 회사 내부 요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의 앨범에서 세계관이 종결될 수도 있고, 여러 앨범에 걸쳐 이어질 수도 있으며, 앨범에 따라 서사의 흐름이 뒤섞일 수도 있는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세계관이 무조건 TXT의 음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TXT의 음악 역시 때로는 세계관과 무관하게 단순한 사랑이나 청춘의 성장 등 보편적 주제를 노래하는 단순한 서사로도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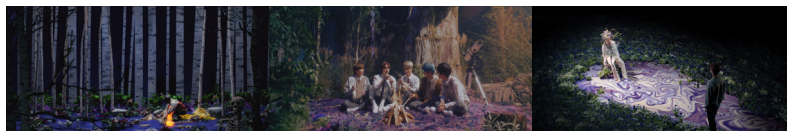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TXT는 다른 아이돌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꾸준히 일관된 세계관을 팬과 리스너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단편영화와 같은 1~30분 길이의 세계관 영상을 따로 제작하는 것은 3~4분 길이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데만 수억 원이 소요되는 케이팝 현장에서 가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대중에게 데뷔 초 TXT만의 차별화된 세계관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향후 서사의 일관성을 기대하게 하는 TXT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TXT의 세계관은 다섯 멤버가 현실 그대로의 고등학생이 되었다가, 세계의 멸망을 마주하고 그 세계를 구원하게 되는 일련의 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현된다. TXT 세계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꿈의 장〉 시리즈로, 세 개의 음악 앨범 〈꿈의 장: Star〉, 〈꿈의 장: Magic〉, 〈꿈의 장: Eternity〉의 발매에 맞춰 차례로 출시된, 세 개의 서사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연구대상은 바로 이 〈꿈의 장〉 영상 시리즈로서, ① 〈별의 낮잠〉, ② 〈매직 아일랜드〉, ③ 〈이터널리〉이다. 이 세 영상은 각 음악 앨범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아닌, 세계관만을 위해 따로 추가 제작된 영상으로서 그 자체로 완결적인 세계관 분석이 가능하다.

〈꿈의 장〉의 주요 등장인물은 다섯 멤버와 별, 오드아이 고양이, 어린 소녀이다. 〈꿈의 장〉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윈터랜드와 오드아이 고양이 등을 연상시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배경과 캐릭터들을 함께 재현한다. 다섯 소년은 남들과 다른 신체적 변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험난한 시련을 헤쳐 나가며 성장하게 된다. 〈꿈의 장〉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판타지 성장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꿈의 장〉 - '오드아이 고양이'



〈그림 6〉 〈꿈의 장〉 - 윈터랜드가 연상되는 '매직 아일랜드'

케이팝 세계관 콘텐츠에서 아이돌의 성장 서사는 주요 플롯의 하나로, 예컨대 방탄소년단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플롯을 통해 동시대 청년들을 대변하며 많은 공감을 끌어낸 바 있다.²³⁾ TXT의 경우는 몽환적인 성격을 더한 판타지 성장 서사를 전개하며 '세계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꿈의 장〉 서사에 내재하는 의미구조와 주제의식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할 것이다.

2-3. 〈꿈의 장〉 1. 〈별의 낮잠〉: 자아정체성을 찾아

〈꿈의 장〉 3부작은 방황하는 다섯 소년이 자아를 성찰하며 마법을 각성하고 마침내 세계를 구원하는 비범한 존재로서 자아정체성을 정립하는 긴 TXT 세계관 시리즈의 시작이다. TXT는 세계관을 통해 마법처럼 비범한 이미지를 부각하며, 세상이 멸망하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팬들이 의지할 수 있는 판타지한 그룹으로 구현된다.

TXT 세계관의 시작이자 〈꿈의 장〉 시리즈의 첫 영상인 〈별의 낮잠〉은 앞으로 전개될 서사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보여준다. 캐릭터의 역할과 세계관의 배경, 그리고 〈꿈의 장〉 3부작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일차적으로 공개한다. 〈별의 낮잠〉은 다섯 소년 멤버가 각자 다른 색의 가면을 쓴 채 모여 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현실과는 다른 분위기의 〈별의 낮잠〉 속 장소(그림 7)는 TXT 세계관의 주된 배경이 되는 '매직 아일랜드'다. 매직 아일랜드는 '별'의 힘으로 빛을 발하며 움직이는데, 별의 힘은 다섯 멤버가 모여 있을 때만 작동한다. 다섯 멤버는 매직 아일랜드를 움직이는 별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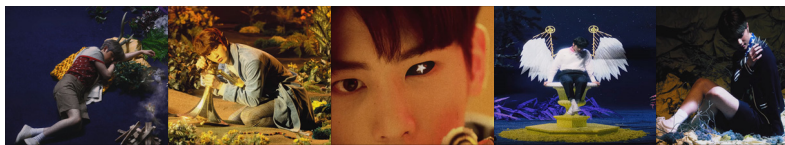
23) 윤지영, 「사회적 통합의 성장 서사와 닫힌 공동체로서의 팬덤: 방탄소년단(BTS)의 초기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3권, 인문콘텐츠학회, 2021, 229쪽.

음을 기억하며 다섯 갈래 갈림길로 각자 자아를 찾아 떠난다.



〈그림 7〉 TXT 세계관의 배경 - '매직 아일랜드'와 다섯 갈래 갈림길

흩어진 다섯 멤버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며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신체적 변이를 겪는다. 연준은 머리에 뿔이 나고, 수빈은 엘프 귀가 솟아난다. 태현의 한쪽 눈엔 별이 박히고, 휴닝카이이 등에는 날개가 돋으며, 범규의 어깨에는 가시가 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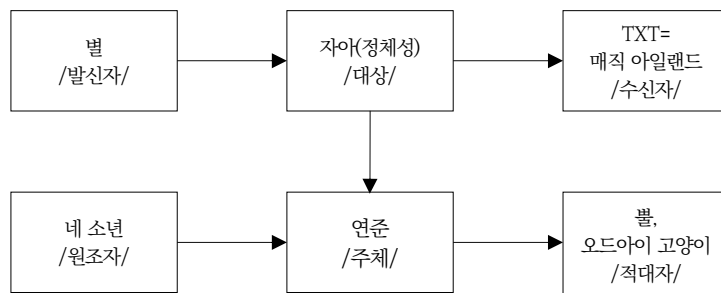


〈그림 8〉 TXT 세계관의 인물 - 보통 사람과 모습이 다른 다섯 멤버

머리에 뿔이 난 연준은 다른 네 명의 멤버와 달리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며 안식처 밖으로 도피한다. 그런 연준에게 네 멤버가 나타나 손을 내밀고, 그렇게 다섯이 다시 모이자 멈췄던 별의 시간도 다시 흐르며 매직 아일랜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때 멤버들은 “곧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음성을 듣는다.

〈별의 낮잠〉에서 연준은 신체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며 나머지 네 멤버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리하여 서사는 전반적

으로 연준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우리는 〈별의 낮잠〉의 행위자 모델을 연준을 주체로 상정하여 〈그림 9〉처럼 도식화해 볼 수 있다.



〈그림 9〉 〈별의 낮잠〉의 ‘행위자 모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주체인 ‘연준’이 욕망하는 대상은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자아’ 혹은 온전한 ‘자아정체성’이 된다. 그는 원조자인 네 소년을 만나기 전까지 자아를 부정하고, 머리의 뿔과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고 하는 오드아이 고양이에게 생존을 의탁하며 자신의 일부인 뿔을 스스로 잘라낸다. 이때 뿔을 자르는 행위는 곧 내적 자아의 분열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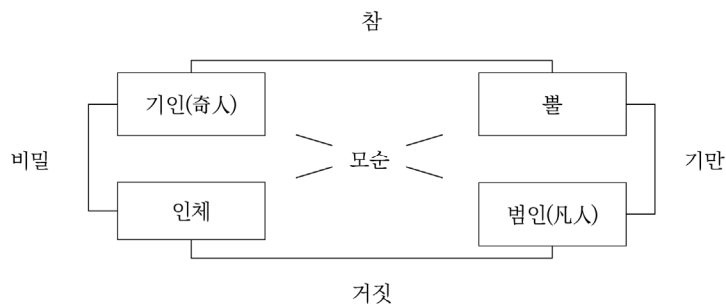
〈별의 낮잠〉에서 적대자는 둘로 나타난다. 하나는 ‘뿔’로서, 연준을 험난한 외부 세계와 대면하게 만든다. 하지만 뿔은 사실 연준의 자아 일부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오드아이 고양이’로, 연준이 스스로 제 뿔을 뽑아 자아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홀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 연준에게 ‘네 소년’이 나타나 원조자로서 도움을 준다.

〈별의 낮잠〉에서 ‘주체’가 ‘대상’을 욕망하도록 만드는, 다시 말해 ‘연준’이 ‘자아(정체성)’를 추구하도록 욕망을 발현시키는, 대상의 전달자로서의 발신자는 ‘별’이다. 별은 다섯 멤버가 모여 매직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연준에게 자아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다섯 멤버가 흩어지면 별은 힘을 잃고, 별의 생명으로 움직이며 다섯 멤버가 모여 균형을 이루는 이상향적 세계인 매직 아일랜드 역시 어둠 속에 멈추게 된다. 따라서 연준이 발신자의 메시지를 실현하게 되면 영광의 수신자는 ‘매직 아일랜드’, 궁극적으로는 매직 아일랜드로 상징되는 세계관의 발로인 그룹 ‘TXT’ 혹은 그룹의 음악이 된다.

요컨대 <별의 낮잠>은 다섯 멤버가 각기 자아를 찾고 하나가 되어 그들의 세계(관)인 매직 아일랜드를 구현하는 판타지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별의 낮잠>의 행위자 모델 분석을 통해 표층에 드러나는 자아와 그룹의 정체성에 관한 반성적인 주제의식을 읽으며 그룹 TXT의 정체성, TXT가 지향하는 판타지한 세계관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표층에 드러난 TXT의 세계관에서 나아가 진리의 기호사각형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그 내재적 의미구조와 주제의식을 밝혀볼 수 있다.



<그림 10> <별의 낮잠>의 ‘진리의 기호사각형’

사실 <별의 낮잠>은 한 존재/그룹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희구로만 그 주제를 한정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이상의 심층적인 주제 의식, 곧 내재적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 상기 진리의 기호사각형(그림 10)은 ‘기인(奇人)’과 ‘뿔’(존재와 현상), 그리고 그 각 모순항인 ‘범인(凡人)’과 ‘인체’(비존재와 비현상)의 네 의미 요소가 참·거짓·비밀·기만의 네 의미 축을 형성하며 서사의 진리, 곧 서사의 심층 주제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별의 낮잠>이 ‘기인’인 존재인 연준이 ‘뿔’이 난 현상을 결국 자기현실(=참)로 받아들이며 모순/갈등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인체’를 가진 ‘범인’의 세상을 구원하는 비범한 마법에 관한 서사, 즉 ‘기형’을 ‘비범함’으로 승화시키는 판타지 서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요컨대 <별의 낮잠>은 그 판타지 서사 속에 ‘세상의 그룹과 다른 비범한 정체의 그룹’으로서의 TXT의 정체성, TXT의 근본적인 세계관을 밝히고 있다. <별의 낮잠>에서 기인의 뿔은 기형이 아니라 마법을 부리는 존재의 상징으로서 TXT는 마법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비범한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며, TXT 그룹의 판타지한 세계관의 서막을 알린다. 여기서 우리는 ‘별’의 두 메시지, 영상 초반의 “내 이름을 기억해(=자신을 잊지 말라)”, 그리고 후반의 “마법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두 메시지를 상기하게 된다. ‘별’의 메시지는 TXT가 자신의 이름, 곧 정체성을 지키며 모두 하나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마법 같은 그룹이 될 것이라는, TXT의 판타지한 세계관, TXT의 미래 비전을 예견하는 것이다. 이처럼 <별의 낮잠>의 TXT는 자신들의 비범한 정체성을 발현함과 동시에 세상에 긍정적 에너지를 발하는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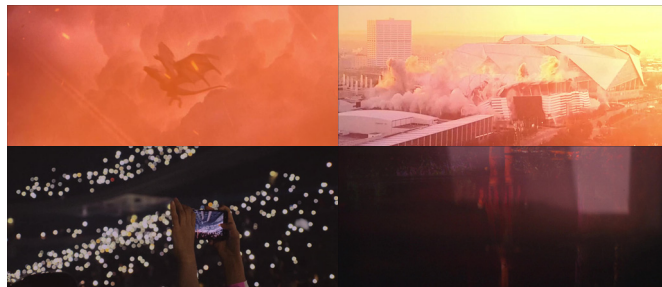
2-4. <꿈의 장> 2. <매직 아일랜드>: 꿈과 현실

이 이야기는 다섯 소년이 별의 노래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소년들은 다시 만났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만났는지, 앞으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별은 아직 눈을 뜨지 않았고, 소년들의 앞길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은 아무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매직 아일랜드〉 영상 중 등장 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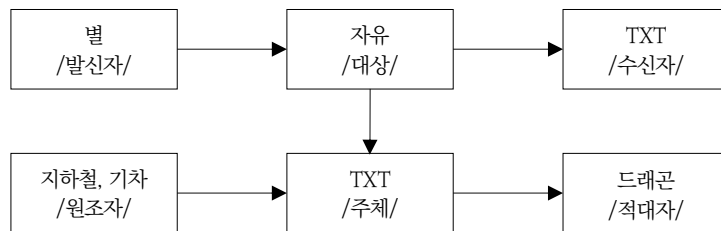
〈매직 아일랜드〉는 위와 같은 텍스트로 이야기를 시작하며, TXT 멤버는 데뷔 전 연습생으로 등장한다. 지하철을 탄 채 연습실로 향하는 다섯 소년은 연습실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빈은 이상한 꿈을 계속 꾸다고 이야기한다. 뚝섬역에서 내릴 준비를 하던 다섯 소년은 시공간을 넘어 비밀의 섬이자 〈별의 낮잠〉의 배경이었던 ‘매직 아일랜드’로 가게 된다. 이동 과정에서 멤버들은 잊고 있었던 〈별의 낮잠〉 속 장면들을 떠올린다. 그 기억에는 수많은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TXT, 화재로 무너지는 공연장, 어두운 연못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녀의 그림자, 화염 속에서 떠나가는 드래곤이 나타난다.



〈그림 11〉 매직 아일랜드로 향하는 도중 떠오른 기억들

매직 아일랜드에 표류한 다섯 멤버는 칠팔처럼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난 자유를 느낀다. 불꽃놀이를 하다 메마른 숲에 화재가 일자 멤버들은 당황

한다. 이들 눈앞에 〈별의 낮잠〉에서 연준을 공격했던 오드아이 고양이와 같이 파란색과 초록색 빛이 나는 기차가 달려든다. 그 사이 하늘을 뚫고 드래곤이 날아간다. 기차와 부딪힌 멤버들은 〈별의 낮잠〉에서 겪었던 경험과 세상의 멸망을 기억해 낸다. 깨어난 그들은 ‘그건 대체 누구의 잘못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내 이름을 기억해”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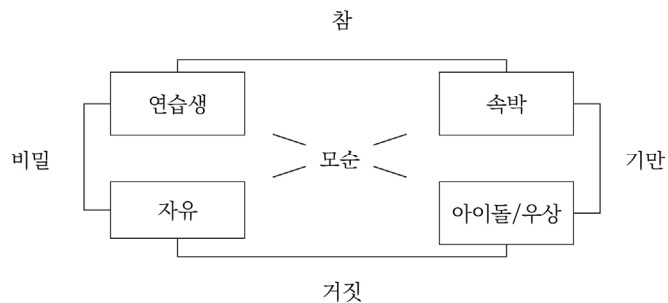
〈그림 12〉 〈매직 아일랜드〉의 ‘행위자 모델’

〈매직 아일랜드〉 서사에서 주체는 ‘TXT’이며,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으로서 주체는 ‘자유’다. 교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연습실로 향하는 TXT의 모습은 전형적인 일상생활 속 평범한 한국 고등학생의 모습이다. TXT는 매직 아일랜드에 도착해 당황하기보다 오히려 교복을 벗어 던지고 자유를 향유하며, 영상은 현실에서 일탈한 소년들의 격양된 감정, 즉 일상의 정체성을 초월함을 강조한다. ‘지하철’은 매직 아일랜드로 이동하게 도와주는 원조자 역할을 한다. 또한 매직 아일랜드의 멤버들에게 달려드는 ‘기차’ 역시 TXT가 잊고 있었던 기억을 상기 시켜주는 원조자가 된다. 적대자는 TXT 멤버들의 잊힌 기억 속 공연장과 매직 아일랜드에 불을 지피며, 세상을 멸망시키는 ‘드래곤’이다. 드래곤은 직접적으로 TXT의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매직 아일랜드를 불에 타게 만들고 주체가 꿈꾸는 관중이 가득 찬 공연장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곧 TXT 세계관의 소멸이

라 할 수 있다.

TXT를 매직 아일랜드로 불러들이는 발신자는 ‘별’이며, 그로써 자유를 얻는 수신자는 ‘TXT’가 된다. 별은 <별의 낮잠>에서도 TXT에게 서로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를 전한 발신자였으며, <매직 아일랜드>에서도 별은 다섯이 모여 힘을 합칠 수 있게 모두를 불러들인다. TXT는 일탈의 공간인 매직 아일랜드에서 <별의 낮잠>의 기억을 되찾으며 자신들도 모르게 기이한, 또는 비범한 존재로서 각성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을 통해 표층에 드러나는 <매직 아일랜드>의 주제는 ‘일탈을 통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일탈을 통한 자유’라는 가시적 메시지보다 심층의 주제의식, <매직 아일랜드> 서사의 내재적 의미구조를 다음 <그림 13>과 같이 진리의 기호사각형을 통해 밝혀볼 수 있다.



<그림 13> <매직 아일랜드>의 ‘진리의 기호사각형’

상기의 기호사각형은 ‘연습생’과 ‘속박’(존재와 현상), 그리고 그 각 모순항인 ‘아이돌/우상’과 ‘자유’(비존재와 비현상)의 네 의미 요소가 참·거짓·비밀·기만의 네 의미 축을 형성하며 <매직 아일랜드> 서사의 진리, 곧 그 심층 주제를 밝히고 있다.

앞에서도 간단히 상기한바, 〈매직 아일랜드〉는 단순한 존재의 자유 찾기에 관한 서사가 아니라, 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비범한 그룹 TXT의 초월적 자유 찾기에 관한 판타지 서사이다. 지하철에서 연습실 귀신 이야기를 나누는 TXT, 브레이크가 고장 난 듯 달려드는 기차를 피하는 TXT, 불난 숲에서 도망치는 TXT... 아이돌이라는 꿈을 위해 매 순간이 속박인 현실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연습생인 다섯 소년은 ‘별’이 귀신임을 자각하는 순간 매직 아일랜드로 이동하게 된다. 다섯 소년은 매직 아일랜드에서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비범한 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한다. 그런 그들에게 별은 다시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다섯 소년은 그 판타지한 공간에서 그들 미래의 초상, 즉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이상 같은 아이돌 그룹 TXT의 초상을 예감한다. TXT는 판타지한 매직 아일랜드에서 초월적 자유를 찾은 아이돌, 이상으로 변모할 것이다. 〈매직 아일랜드〉의 근본적 세계관이 단순한 자유, 단순한 아이돌 그룹의 표방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자유, 초월적 아이돌’을 지향하는 비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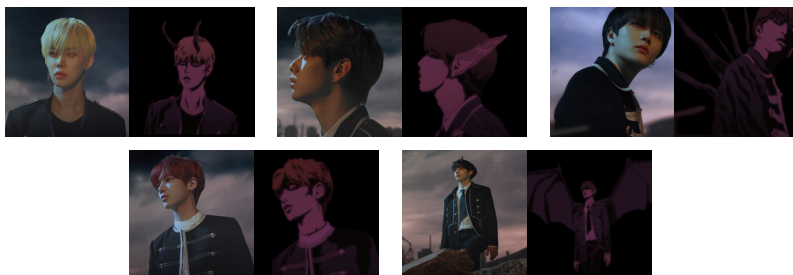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의 기호사각형의 결론, 즉 ‘연습생’인 존재가 ‘속박’이라는 현실의 현상을 판타지한 일탈을 통해 그 모순/갈등을 극복하고 초월적 ‘자유’를 찾은 ‘아이돌/이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매직 아일랜드〉는 TXT가 ‘매직 아일랜드’로 상징되는 판타지한 세상의 주체로 변모하는, 초월적 자유의 획득과 비범한 자아를 각성하는 존재론적 판타지 서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첫 앨범 〈별의 낮잠〉이 TXT가 자신들의 비범한 정체성을 처음으로 대면하고 성찰하는 TXT 세계관의 서막 같은 서사였다면, 후속의 〈매직 아일랜드〉는 TXT의 비범함을 초월적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본격적인 TXT 세계관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터널을 지나면 눈을 뜨고 나면 / 꿈속은 현

실이 돼 / 내 영원이 돼줘 내 이름 불러줘...” 이는 앨범 〈꿈의 장: Magic〉 타이틀곡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Run Away)〉(2019.10)의 가사 일부로, 자신들의 꿈같은 판타지한 기억들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매직 아일랜드〉는 연습생에서 아이돌로의 성장 과정을 ‘자유’라는 상징에 판타지를 더하여, 결국 TXT가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 세상이 우상처럼 숭배할 아이돌 그룹이라는 그들 세계관을 선언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2-5. 〈꿈의 장〉 3. 〈이터널리〉: 미래를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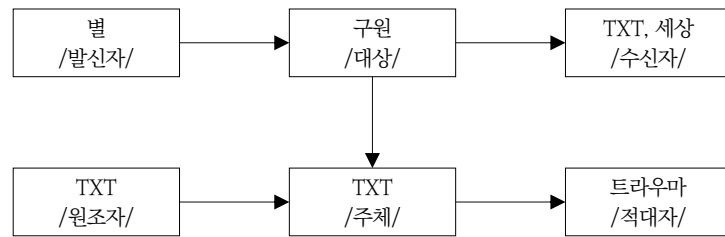
〈꿈의 장〉 마지막 세계관 영상인 〈이터널리〉는 영원을 암시하는 제목이지만, 영상 썸네일부터 악마를 형상화한 듯한 다섯 소년이 등장한다. TXT는 드래곤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공연장을 바라보며 세계를 등지고 서 있다. 수빈이 연준에게 말을 걸고 얼굴에 피가 흐르는 연준이 수빈을 돌아보는 순간, 수빈은 일상의 연습실에서 잠이 깬다.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고, 창문엔 ‘하늘에 떠 있는 걸 찾아’, ‘우린 결국 이렇게 되는 걸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숨을 못 쉬겠어’, ‘빠져나가야 해’, ‘계단에 올라가지 마’ 같은 문장들이 새겨진다. 방황하는 멤버들 사이에서 수빈은 문 사이로 환한 빛을 발하는 엘리베이터를 응시하다가 곧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 어린 휴닝카이와 ‘소녀’를 마주하고, 눈물을 흘린다. 수빈의 이동과 함께 현실 속 시계는 멈추고, TXT 멤버는 각자의 기억 속에서 해매게 된다.



〈그림 14〉 〈이터널리〉 속 TXT의 모습

연준은 폐허 속에서 자신의 시체를 마주하는 동시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오드아이 고양이를 발견한다. 범규는 어느 방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또 다른 범규는 순식간에 상대방을 해치고, 그때 어깨에 가시가 돋는다. 태현은 팬지 꽃밭에서 목에 보라색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연준을 발견한다. 휴닝카이는 빛과 소녀의 환상을 따라 계단을 오르고, 전혀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네 명의 멤버를 마주하게 된다. TXT는 각자의 꿈에서 절망, 방향, 놀라움을 느낀다. 죽은 멤버의 모습,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다른 시공간의 타인을 보며 혼란을 느끼는 TXT는 누군가 트라우마의 미로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주기를, 구원의 열쇠를 얻길 바란다.

이상과 같은 〈이터널리〉 서사의 행위자 모델은 다음 〈그림 15〉와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그림 15〉 〈이터널리〉의 ‘행위자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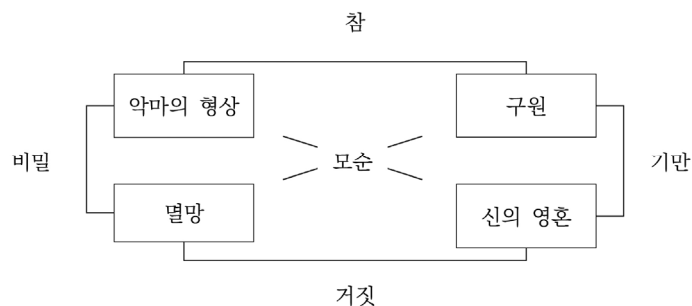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주체 ‘TXT’의 욕망으로서 대상은 ‘구원’이다. 영상 속 TXT는 끝없는 트라우마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다섯이 함께였던 공간을 벗어난 TXT는 각자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된다. 폐허가 된 공연장 앞 악마처럼 서 있는 모습(수빈), 악마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는 자신(범규), 죽어있는 모습(태현), 폐허 속에 널브러져 있는 자신의 시체(연준) 등,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다시 말해 TXT의 적대자는 그들 속의 그림자, 그들 자신의 어두운 단면, 그 자신들의 ‘트라우마’다. 즉 TXT의 적대자는 그들 자신인 것이다. 존재의 가장 강한 적대자는 언제나 그들 자신으로, 주체 TXT가 트라우마라는 적대자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조력하는 원조자도 ‘TXT’ 자신들이 된다. ‘스스로를 구원하라...’ TXT만이 또한 TXT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주체 TXT가 대상으로서의 ‘구원’을 이루도록 욕망을 발현시키는, 대상의 전달자로서의 발신자는 1-2부작에 이어 역시 ‘별’이며, 수신자는 구원을 스스로 실현하는 ‘TXT’ 자신, 동시에 TXT가 구원하는 ‘세상’이 된다.

다섯 소년은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구원자의 영혼으로 멸망한 세계를 트라우마라 생각하며 세상을 구원할 길을 모색한다. TXT는 아이돌로서 대중의 환호 속에 공연을 하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지만, 트라우마 속의 TXT는 죄책감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적인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꿈의 장〉 시리즈 세 앨범 간에는 서사적 연계성이 내재하고 있다. 특히 첫 1부작 〈별의 낮잠〉의 ‘기형’ 모티프, 그리고 마지막 3부작 〈이터널리〉의 ‘악마의 형상’ 모티프는 시리즈의 앞과 뒤를 열고 닫으며 세상과 다른 TXT의 ‘차이’, 곧 ‘판타지한 비범함’이라는 TXT 그룹의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세계관을 표상하는 상징, 라이트모티프로서 시리즈를 하나의 유기적 서사로 통합하고 있다. ‘기형’은 종국에 세상의 시간을 다시 돌리는 동인이 되었으며, ‘악마의 형상’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의 역설적 알레고리로서 TXT 그룹의 세계관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서사로 구현하였다.

요컨대 〈이터널리〉의 행위자 모델이 가시화하고 있는 주제는 악마의 형상으로부터 ‘영혼의 구원’, 나아가 트라우마 같은 ‘세상의 구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기호사각형을 통해 좀 더 깊은 〈이터널리〉의 의미구조, 근본적인 주제의식을 밝혀볼 수 있다.



〈그림 16〉 〈이터널리〉의 ‘진리의 기호사각형’

상기 〈그림 16〉의 기호사각형은 ‘악마의 형상’과 ‘구원’(존재와 현상), 그리고 그 각 모순항인 ‘신의 영혼’과 ‘떨망’(비존재와 비현상)의 네 의미 요소

가 참·거짓·비밀·기만의 네 의미 축을 형성하는 <이터널리> 서사의 진리, 곧 그 심층 주제를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진리의 기호사각형은 <이터널리>가 단순한 ‘세상의 구원’ 그 이상의, ‘영혼으로 회구하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TXT의 세계관을 밝히고 있다.

<이터널리>는 ‘악마의 형상’과 ‘(신의) 영혼’, 곧 존재의 ‘외면’과 ‘내면’의 대립이 의미의 구도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TXT의 비범함은 외형이 아니라 내재적인 힘, 즉 영혼에서 발현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악마의 형상’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판타지한 역설적 서사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의 전형적 역할은 구원이 아니라 파괴와 멸망으로의 유혹이다. 하지만 악마의 모습을 한 TXT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구원을 욕망하고 있다. <매직 아일랜드>에서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한 장면으로 마주했던 장면이 곧 욕망의 현실로 전환된 것이다. <이터널리>의 TXT는 <매직 아일랜드>에서 그들이 예감했던 미래,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우상/아이돌 그룹이 될 것’이라는 그 열망의 미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악마적인(=절망적인) 자신들을 마주한다.

<이터널리>에서도 세상의 구원은 여전히 TXT의 영혼 속에 잠재된 꿈이고 예감이다. TXT는 악마의 모습으로 세상의 구원을 열망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혼란과 불안, 동시에 무거운 의무감 같은 분열적인 감정을 절망적으로 경험한다. “제발 멈춰 매일 밤 꾸는 이 악몽 잡힐 듯 말 듯한 네 손 / 이젠 말해줘 입가를 헤매는 이름 이 슬픈 꿈의 의미를 / 추억의 미로 속 잠긴 내 마음 / 구해줘, 날”과 같은 <이터널리>의 가사는 TXT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의 아이돌 그룹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재현한다. TXT는 초월적 존재라는 자기 ‘각성’을 아직 꿈의 경계에서 현실의 ‘힘’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 성장 중인 케이팝 그룹이 꿈을 통해 세상의 우상인 아이돌로서의 미래를 예지하며 열어가는, 현재가 아

나라 열린 미래를 향한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TXT의 다음 세계관 시리즈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된다.

3. 나가며

세계관은 더 이상 낯선 콘텐츠가 아니다. 독특한 시공간적 배경과 아이돌의 색다른 캐릭터는 팬이 한층 더 그룹과 음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며, 후속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아이돌을 뮤직 아티스트만이 아닌 영웅 서사시 같은 흥미로운 서사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세계관은 음악의 가사를 넘어서는 열린 서사, “누구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복합적 의미체”²⁴⁾로서 음악의 무한한 확장을 가능케 한다.

11개의 음반을 발매하며 세계관을 이어가고 있는 TXT의 서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세계관 시리즈의 시작인 <꿈의 장> 시리즈의 세 영상, <별의 낮잠>과 <매직 아일랜드> 그리고 <이터널리>의 서사를 살펴보았다. <꿈의 장> 시리즈는 데뷔 당시 모두가 미성년이었던 다섯 멤버의 성장과 함께 그룹의 비전을 판타지 서사로 재현한다. 먼저 데뷔할 TXT를 각인시키는 “내 이름을 잊지마”(데뷔 전), 이어 데뷔를 실현하는 “꿈은 현실이 될 거야”(연습생→데뷔), 그리고 세상을 영혼의 음악으로 구원할 TXT의 ‘미래를 향해’(데뷔 초)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TXT의 세계관은 TXT의 성장 서사일 뿐만 아니라 틀에 갇힌 일상을 살아

24)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제14권, 인문콘텐츠학회, 2009, 251쪽.

가는, 사회적 소통이 아직 버거운 동시대 청소년들의 현실과 중첩됨으로써 시대와 세대의 꿈과 비전을 동시에 대변하고 위로하며 팬덤을 넘어서는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꿈의 장〉 시리즈의 시작이자 세계관의 시작인 〈별의 낮잠〉은 불완전한 자아정체성에 대한 성찰로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이해를 통해 자아를 자각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머리에 자란 별, 어깨에 돌아난 가시, 등에 펼쳐진 날개, 동화 속 요정귀, 별이 되어버린 눈동자는 ‘성장통’을 표현하며, 이는 또한 동세대 팬들의 심적 동일화 기제가 된다. TXT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자신 그대로일 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빛나게 하는 구원의 존재이자 구원의 그룹이 된다. 〈별의 낮잠〉은 “내 이름을 잊지마”라는 서사적 메시지를 통해 결국 ‘나’와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라는 TXT의 세계관을 알린다.

〈매직 아일랜드〉는 연습생에서 우상으로서 각성하는 TXT를 재현한다. 현실의 지하철을 타던 평범한 연습생인 TXT가 ‘별’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매직 아일랜드로 이동한다. TXT는 자유를 찾으며 〈별의 낮잠〉에서 겪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마주하게 된다. 스치는 기억의 잔상 속 모습들은 자신의 얼굴임에도 세계의 멸망에 일조한 것 같은 낯선 악마이고, 불타버린 공연장은 ‘슈퍼스타’를 꿈꾸는 TXT를 불안하게 만든다. 평행우주 속 자신들의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마주하게 된 TXT는 더 이상 보통의 존재일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세상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초월적 구원자, 초월적 아이돌/우상으로서 각성하게 된다. 이렇게 〈매직 아일랜드〉는 대중의, 세상의 구원자인 우상으로서 초월적 아이돌 그룹 TXT의 등장을 알리는 선언이 된다.

〈이터널리〉는 기이한 형상을 넘어서는 내적 영혼, 즉 부조리한 현실을 초월하는 본질을 직시하고 통찰할 때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알레

고리적이고 존재론적인 세계관을 재현한다. TXT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으며, 불완전한 우상이다. 실제 눈앞에 펼쳐진 가시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은 ‘트라우마의 미로’라 절규하며 여전히 구원을 기다린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별이 구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TXT는 내면의 영혼, 진정한 자아와의 대면과 초월적 자기 승화의 미래를 다짐한다.

TXT의 〈꿈의 장〉 시리즈는 미완성의 잠재적 초월자를 재현하는 판타지 서사이자 동세대 청소년을 반영하는 성장 서사이다. TXT가 세계관에서 마주하는 현실들은 고통스럽다. TXT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별(팬덤)과 아니면 TXT 자신들과 서로 도움을 통해 그 절망을 헤쳐나가는 장면을 반복해 보여준다. 연대를 통한 자아의 성장, 동시에 팬덤/세상의 ‘우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재현하는 것이다. 〈꿈의 장〉에는 자아를 기억하며 서로 연대할 때 가장 강해진다는 휴머니즘적 세계관을 전하는 상징이 곳곳에 자리한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TXT에게 “내 이름을 잊지마”, “마법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별’은 TXT의 팬덤 ‘모아(Moments Of Alwaysness(MOA), 서로의 꿈 조각을 ‘모아’ 하나로 완성하는 TXT와 팬들)’와 동시에 자아를 상실한 현대를 살아가는 10·20세대-의-에 의한-를 위한 반영으로서 시리즈를 하나로 연계하는 매개, 나아가 〈꿈의 장〉의 세계관을 팬덤에, 대중에게, 세상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 장치가 되고 있다.

우리는 TXT의 〈꿈의 장〉 시리즈를 그 자체 이상으로 미화하거나 의미와 논리를 덧붙이고자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바라보며 성찰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실 원론적으로 세계관 콘텐츠는 주된 K-POP 팬덤 층인 10·20세대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용이한,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단순한 서사로 구성되는 대중음악 콘텐츠이며, 이는 TXT의 세계관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TXT의 세계관 콘텐츠가 청소년기

에 직면하는 정체성의 문제, 성장 과정의 심리적 갈등 등 10·20세대의 보편적 경험을 서사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XT의 세계관은 TXT 팬덤 ‘모아’ 대부분에 해당하는 10·20세대가 쉽게 바로 공감하고 나아가 위로 받을 수 있는 일상의 희로애락을 판타지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관 콘텐츠는 TXT와 팬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음악의 차원을 넘어 삶으로 승화하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여정 자체가 된다. 즉 TXT의 세계관 콘텐츠는 결국 주 소비자인 팬이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나아가 현실이 판타지가 되는 위로, 카타르시스가 가능한 서사가 되어야 한다.

현대 케이팝 아이돌의 세계관 콘텐츠는 아이돌 그룹이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그 정체성과 고유의 서사를 확장하는 주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세계관은 케이팝 아이돌을 단순한 현실의 뮤직 아티스트가 아닌 판타지한 서사의 주인공으로 구현하면서, 팬들의 정서적 몰입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팬이 가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세계관 콘텐츠는 경우에 따라 음악 이상의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우리의 연구는 음악 장르에서는 드물게, 서사 담화로서 TXT 세계관의 논리와 내적 의미구조를 기호학적 관점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면 우리의 연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TXT 세계관 중 초기 시리즈를 선별적 대상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개진하였다는 점, 그리고 세계관 서사가 주 케이팝 소비자인 10·20세대가 이해하기 용이한 보편적이고 직관적인 관념을 주제로 하는 대중음악 콘텐츠인 만큼 원론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확장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후속 연구, 예컨대 TXT의 세계관 시리즈 전체의 통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서사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통찰, 또

아이돌의 세계관 서사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 TXT의 〈꿈의 장〉 시리즈를 중심으로 / 이유나·류은영 179

한 팬덤과의 인터랙션과 콘텐츠의 확장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돌의 세계관이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다 깊은 성찰이 담긴 다양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TXT. 〈별의 낮잠 (Nap of a Star)〉 Official MV, 2019.06.05., <https://www.youtube.com/watch?v=XkDA02FHHik>. (검색일: 2024.11.14.)
- TXT. 〈Magic Island〉 Official MV, 2019.11.18., <https://www.youtube.com/watch?v=KskEx8K-l2Q>. (검색일: 2024.11.14.)
- TXT. 〈Eternally〉 Official MV, 2020.06.29., <https://www.youtube.com/watch?v=mxlloUcfUy0>. (검색일: 2024.11.14.)

2. 논문과 단행본

- 김명진, 「디지털시대 서사와 매체의 융합: 세계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4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87-100쪽.
- 김진곤, 「BTS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의 시각 이미지에 대한 의미 분석」,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제23권 73호,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22, 101-110쪽.
- 나재은, 『사회자본과 청소년 팬덤문화』, 지식의날개, 2021.
-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제14권, 인문콘텐츠학회, 2009, 229-262쪽.
- _____, 「신데렐라 서사의 현대적 패러다임: 동화 『신데렐라』와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제42권, 세계문화비교학회, 2013, 267-290쪽.
- 박소영, 「아이들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전략: 아이돌 그룹 뉴이스트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3권 1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43-62쪽.
- 박인철,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4.
- 안희제, 『망설이는 사랑: 케이팝 아이돌 논란과 매혹의 공론장』, 오월의봄, 2023.
- 윤여광,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3권 3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9, 13-25쪽.

- 윤지영, 「사회적 통합의 성장 서사와 닫힌 공동체로서의 팬덤: 방탄소년단(BTS)의 초기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3권, 인문콘텐츠학회, 2021, 213-233쪽.
- 이동은, 『스토리 유니버스』,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 이지향, 『세계관 만드는 법』, 유유, 2023.
- 이하나·김민정,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관 활용 사례 현황 분석 연구 -K-POP 아이돌그룹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30권 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4, 357-366쪽.
- 정지은, 「케이팝(K-POP)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19권 3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9, 63-72쪽.
- 존 피스크, 『대중과 대중문화』, 박만준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주연경·조혜정, 「방탄소년단 세계관 콘텐츠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생성요건 연구」, 『인문사회 21』 제12권 4호, 인문사회 21, 2021, 1161-1176쪽.
- 주형일, 「그레마스 기호학을 이용한 서사 분석의 문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76권 2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7-30쪽.
- 최윤영·고정민, 「K-POP 아이돌 그룹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확장 사례 연구: 리부트와 오마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1권 4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723-733쪽.
- 크리스티앙 살몽,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 정신을 포맷하는 장치』, 류은영 역, 현실문화, 2010.
- Algirdas Julien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recherche de méthode*, Paris:Larousse, 1966.
- Algirdas Julien Greimas & François Rastier, "The interaction of semiotic constraints", *Yale French Studies* n° 41,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86-105.
- Algirdas Julien Greimas & Joseph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Tome 2*, Paris:Hachette, 1986.

Abstract

A Semiotic Analysis of Idol Narrative Universes - Focusing on TXT's <The Dream Chapter> Series

Lee, Yu-Na and Ryu, Eun-You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presents a semiotic analysis of K-pop idol universe content/narrative. The ‘universe content/narrative’,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key factors in the global success of EXO (2012) and BTS (2013),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numerous Korean idol groups that debuted subsequently. In the K-pop cultural landscape, group-specific universes have become essential for self-branding and positioning. Since their debut in 2019, TXT has actively communicated with their fandom and the public through a unique fantasy-based universe narrative. Unlike other groups whose universe content either remains event-driven or concludes ambiguously due to internal circumstances, TXT has narratively imprinted their existence and image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K-pop consumers through a series of universe content. This study employs Greimas's semiotic methodology to analyze three key videos from TXT's The Dream Chapter series—Nap of a Star, Magic Island, and Eternally. These videos, which mark the inception of TXT's narrative universe, are examined to elucidate their narrative structure and thematic consciousness.

TXT's universe narrative extends the group's artistic vision beyond primary musical communication, creating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that fosters deep emotional engagement within contemporary fandom. This narrative is structured around a series of interrelated thematic elements—“youth growth, exploration of self-identity, and transcendent salvation.” This approach not only evokes profound emotional resonance but also illuminates and expands the group's musical vision. From the “reflection on self-identity” in <Nap of a Star>, through

the “pursuit of deviation and freedom” in <Magic Island>, to the “salvation and transcendence” in <Eternally>, the organic series of visual narratives reproduces the message that TXT's music aspires to: “a group/world that grows together through dreams, hope, and solidarity.”

Consequently, this study reflects on the structure and thematic consciousness of TXT's universe narrative, and further, tentatively proposes an exploration of the emo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p's narrative vision and its impact on fandom and the public. In essence, the study seeks to highlight the social value and significance of K-pop idol universe content.

(Keywords: Idol, Narrative Universe, Discourse Analysis, Semiotics, K-Content)

논문투고일 : 2025년 01월 06일

심사완료일 : 2025년 02월 15일

수정완료일 : 2025년 02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5년 02월 18일